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9



▶ 90회 예고
마힌다는 3년 만에 스승 목갈리뿟다띳사가 있는 아호강가산을 다시 찾는다. 아쇼까왕이 설법하는 것을 재가했기 때문이었다. 스승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난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뜻을 전한다. 이로써 아쇼까라마는 정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마힌다, 스승 목갈리뿟다띳사를 찾다

아호강가는 강가강 북쪽 야무나강 안쪽에 있는 마투라 지근거리에 있었다. 마힌다는 마투라 동쪽 나루터에 상선이 멈추자 몇몇 상인들과 함께 내렸다. 멀리 언덕 같은 야트막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힌다는 한눈에 숲이 울울한 그곳이 아호강가산(山)이라고 짐작했다. 낯선 이름은 아니었다.

야무나강 강변 들판의 널따란 밭에는 사탕수수가 웃자라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옆에는 거친 풀을 뜯는 염소 떼들이 어슬렁거렸고, 도랑을 흐르는 물줄기가 돌돌돌 소리치며 흘렀다. 마힌다는 갑자기 베디샤나가르에 머물던 시절이 그리웠다. 산치 언덕이 가까운 베디샤나가르에는 베디샤 상인수장이었던 외할아버지의 널따란 농원이 있었던 것이다.

길 저쪽에서 발우를 든 한 사문이 걸어오고 있었다. 마투라로 탁발을 나가는 사문 같았다. 마힌다가 말했다.

"사문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아십니까?"

"삼부따 사나와시 아라한께서 머무셨던 꾸띠에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누더기를 걸친 사문은 마힌다 곁을 바람처럼 휙 사라졌다. 마힌다는 아난다의 가풍을 흠모하고 따르던 사나와시가 우빠굽따 장로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아!'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사나와시 아라한은 평생 숲속의 아란야(Araṇya)를 떠나지 않았으며, 탁발을 하는 걸식자였으며, 공동묘지에서 주워온 누더기만 입은 분소의자였으며, 오직 세 가지 가사만 가진 철저한 율사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목갈리뿟다띳사가 왜 아호강가산으로 와서 은둔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했다. 아호강가에는 사나와시 아라한이 이미 열반에 들어 없었지만 계율을 중시하는 그 후예들이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마힌다는 목갈리뿟다띳사가 머물고 있는 꾸띠에 이르렀다. 반얀나무 한쪽에 자리한 꾸띠는 아쇼까라마의 벽돌집과 달리 갈대로 얼기설기 지붕을 덮은 초라한 움막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꾸띠 밖 밝은 곳에서 해진 누더기를 깁고 있다가 마힌다를 맞이했다. 자신에게 비추는 햇볕을 가리자 마힌다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마힌다는 엎드려 오른손으로 목갈리뿟다띳사의 발을 만진 뒤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장로여, 무슨 일로 왔소?"

"스승님이시여, 대왕님의 명으로 왔습니다."

"대왕님 명이 무엇이오?"

"스승님을 모셔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쇼까라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행하는 이곳 사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없이 행복하다오."

"대왕님은 아쇼까라마를 정화해왔습니다. 특별히 담마마하마따를 보내 이교도들이 사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왕님께서 담마칙령을 새긴 석주를 곳곳에 세우신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그것만으로 외도들을 정화했다고는 볼 수 없소."

"대왕님은 짐승끼리 싸우게 하는 사마자를 금지시켰고 최근에는 살생을 금지하는 담마칙령을 내렸습니다. 대왕님 자신부터 담마를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승님이시여, 담마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대왕님을 위해 아쇼까라마로 복귀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대왕님은 담마를 위해 더욱 힘쓰실 것입니다."

그래도 목갈리뿟다띳사는 완강하게 팔을 저었다. 마힌다의 간곡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대왕님을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아프오. 대왕님께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아쇼까라마는 내가 머물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오."

마힌다는 더 이상 권유하지 못했다. 마힌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오늘은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배를 타기에 늦었소. 나루터에서 자겠소? 아니면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머물렀던 동굴로 가서 자겠소?"

"동굴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이라오."

"고맙습니다."

마힌다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따라서 동굴이 있는 곳으로 갔다. 동굴은 꾸띠에서 조금 멀었다. 아호강가산 동쪽 절벽에 있었다. 동굴인데도 내부가 어둡지 않았다. 햇빛이 동굴 안으로 흘러들어와 있었다. 멀리 야무나강이 반짝거렸고 강변 모래밭까지 펼쳐진 들판이 보였다.

"여기서는 아쇼까라마와 달리 탁발해야 하오. 그러니 마투라로 나가 한 번은 탁발하시오."

"알겠습니다. 스승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는 벌써 등을 보이고 있었다. 마힌다는 문득 스스로 탁발해본 적이 오래 되었음을 상기했다.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아쇼까왕이 날마다 베푸는 공양을 받기만 했던 것이다.

다음날 오후. 마힌다는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상선을 탔다. 상선은 바라나시 나루터에서 하루 동안 멈추어 있다가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했다. 바라나시에서 가장 많은 물품을 하역했다. 돌아온 마힌다는 즉시 아쇼까왕 집무실로 갔다. 아쇼까왕은 덤덤하게 마힌다를 맞았다. 마힌다가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님은 아호강가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그곳 사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문들이 살고 있기에 그렇소?"

"계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문들입니다."

"어떻게 지키기에 그렇다는 것이오?"



"제 눈으로 보았던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숲을 떠나지 않는 삼림주자(山林住者)들이었고, 두 번째는 탁발하는 걸식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주운 천을 걸치는 분소의자(糞掃衣者)들이었고, 네 번째는 세 가지 가사만 소유하는 삼의자(三衣者)들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어째서 중요한 것이오?"

"고따마 붓다는 물론 당시의 모든 비구들이 네 가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가 자신의 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칭찬의 말을 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소. 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최고의 율사로 존중받는 것이오. 나는 더 기다리겠소. 마힌다 장로가 다시 가서 내 뜻을 전하시오."

"저도 스승님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오시오. 나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예전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듣고 싶소."

"스승님은 원하시는 것이 없을 듯합니다. 현재에 아주 만족하고 계시니까요."

"내 말을 전하면 장로님은 신통으로 무슨 뜻인지 바로 알 것이오."

마힌다는 아쇼까왕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더 묻지 않았다.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면 알게 될 것이므로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대왕님이시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이번에는 다른 장로를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뵙고 돌아오다가 발바닥에 상처가 나 지금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여, 당장에 떠나라는 말은 아니오. 우기가 시작되면 강물이 범람할 것인데 위험한 시기에 배를 타고 어떻게 거기를 오갈 수 있겠소?"

"우기가 끝날 무렵에는 제 상처도 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도 되오."

마힌다는 문득 우기가 지나가는 동안 목갈리뿟다띳사가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위나 석주에 담마칙령을 새기는 한편 스스로 담마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아쇼까왕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아쇼까왕은 한때 목갈리뿟다띳사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던 것이다. 아쇼까왕이 궁중의원을 불렀다. 그런 뒤 지시했다.

"마힌다 장로의 발을 치료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시기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치료하면 곧 나을 것입니다."

"알았소."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집무실을 나와 우빠굽따가 머무는 꾸띠로 갔다. 우빠굽따는 마힌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맞았다.

"마힌다 장로여, 아호강가산의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님께서는 잘 계시던가요?"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아쇼까라마로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님처럼 아쇼까라마를 사랑하는 분도 없습니다. 수석장로님께서 오시지 않는 까닭은 아직도 이곳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 어느 때인가는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외도들이 모두 물러갈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오."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몹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도들을 당장 아쇼까라마 밖으로 추방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담마마하마따가 있지만 외도를 분간하기란 한계가 있지요. 게다가 장로들은 그들과 논쟁하기를 꺼려하고."

"대왕님께서 특별한 명을 내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대왕님께서도 담마마하마따처럼 사문과 외도를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겠소? 쉬운 일이 아니오."

우빠굽따에게서도 외도를 추방할 대책을 듣지 못한 마힌다는 실망했다. 담마마하마따는 너무나 사무적이고 또한 장로들은 논쟁과 다툼을 꺼려하므로 별 수 없었다. 마힌다는 우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목갈리뿟다띳사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마힌다는 해를 넘긴 뒤 또 다시 아호강가산으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침에는 마투라로 탁발을 나가고, 낮에는 동굴에서 기도하고, 밤에는 자신의 꾸띠로 돌아와 어린 사미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런데 목갈리뿟다띳사의 태도는 여전했다. 마힌다가 아쇼까왕의 말을 전하자마자 팔을 휘휘 저었다.

"나는 대왕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오."

"대왕님께서는 스승님의 설법을 듣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쇼까라마와 상관없이 설법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설법이라면 모를까 아쇼까라마에 상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스승님께서 아쇼까라마로 돌아오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잠시 오시어 설법이라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마힌다는 아쇼까왕의 명을 다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목갈리뿟다띳사로부터 반승낙은 받아냈다고 자위했다. 그러나 이는 마힌다의 생각일 뿐 아쇼까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랐다. 마힌다는 빠딸리뿌뜨라로 빨리 돌아가 스승의 설법만이라도 아쇼까왕에게 재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페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